

AUTHOR 하재성

TITLE 목회자 Calvin의 신학 : 그 실천적 인간상

IN 성경과 신학

Vol. 53 (2010): 137-170

time. It is true that Calvin opposed to regarding the morality as the primary evidence of saving faith. But he did not objected to using it as a supplementary means of judging one's state of soul. In some occasions he admitted the good works to be the secondary evidence of justification.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assurance, there are both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Calvin an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Both recognize that faith grows: in the former, from the weak faith to the strong, in the latter, from the small to the bigger. The main divergency between the two is regarding whether the assurance is the essence of the faith: the former says "yes," while the latter, "no." "This *infallible assurance* doth not so belong to the *essence of faith* but that a true believer may wait long and conflict with many difficulties before he be partaker of it."

In the light of the Calvin's doctrine of faith, we find that some aspects are missing in modern evangelism. Modern evangelists tend exclusively to emphasize the intellectual and voluntary assent as a condition for salvation. This seems to approach to the scholastic position of faith in Calvin's time. In modern evangelism are lacking such elements of faith as the assurance or trust of heart. Calvin stressed as the prerequisite of the saving faith the role of the Holy Spirit who gives revelation and sealing on the heart. Modern evangelism underlines human responsibility and role so one-sidedly that the audiences may think that the "saving faith" entirely depends on one's decision.

Key-Words : Calvin, Faith, Saving faith, assurance, knowledge, heart, trust, Scholastics, Implicit faith, moral conjectur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Evangelism, assent, anxiety, unbelief

목회자 Calvin의 신학:

그 실천적 인간상*

John Calvin's Pastoral Theology: A Practical Vision of
Healthy Human Life

하재성 박사 (Ha, Jae-Sung)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신학)



종교 개혁자이며 신학자인 John Calvin은 그 신학의 견고한 논리 때문에 매우 차갑고 범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Calvin의 신학이 논리적으로 분명하다는 것과 그의 신학과 적용이 비인간적이라는 판단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Calvin의 신학은 논리의 완결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와 확신을 주려는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이 뚜렷하다. 오늘날의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신학적 이론과 목회 실천 사이에서 매우 균형 잡힌 신학자였다. Calvin의 신학은 사변적인 논리의 말 잔치에 머무르는 스킨라적 신학과 달리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을 추려고 한다. 무정(無情)을 이상적으로 그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그는 감정을 인간의 매우 중요한 본질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성경과 신학에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자기 시대의 인간과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 논문 접수일: 2009. 9. 25. 수정 접수일: 2009. 12. 18. 게재 확정일: 2010. 2. 20.

그의 균형 잡힌 신학과 인간관은 21세기의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주제어 : John Calvin, 스콜라 철학, 스토아학파, 실천, 즐거움

1. 여는 글

어떤 이는 종교 개혁자이며 신학자인 John Calvin의 신학의 체계성과 빈틈없는 논리 때문에 그가 마치 매우 “차갑고 추상적이며 논리적이고 법정적”인 비인간적 태도를 가진 것처럼 말한다. 예를 들어, 칭의론(justification)에 대한 Martin Luther의 논의는 “따뜻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고 평가하면서¹ 정작 Calvin의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신학에서는 “발표의 명료성, 주장의 효율성, 그리고 적용의 철저함” 등에 있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혹평한다.² 왜냐하면 Calvin이 오직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하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논리로 망치질”을 해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

그러나 Calvin의 신학이 논리적으로 분명하다는 것과 그의 신학이 비인간적이라는 판단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Calvin의 신학은 논리의 완결성만을 가진 냉소적인 지식 체계가 아니다. 정작 Calvin의 신학과 가르침에는 논리적 패쇄성이나 비인간적 규칙이 아닌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로, 자유와 확신을 주려는 그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도가 두

드러지게 배어난다. 21세기 기독교 상담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신학과 목회적 실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매우 균형 잡힌 신학자였다. 쉽게 말해 그의 신학은 목회적 실천과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침례하게 논리적인 그의 섭리론과 예정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와 심판을 선포하려는 의도 이전에, 믿는 자들의 “선한 일들에 대한 감사와 적대적 상황에서의 인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의 놀라운 자유”를 알게 하려는 목회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⁴ 즉 Calvin의 신학은 사변적인 논리의 말잔치에 머무르는 신학이 아니라 지식의 유용성(utility)과 실천성(practicality)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을 주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상담학을 비롯한 현대 실천 신학의 실천적 본질과 상통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Calvin은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에 대해 깊이 헌신함과 동시에, 목회자로서 자신의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한다.⁵ 그는 성경과 신학에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자기 시대의 인간과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학문 영역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저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적극적인 학습자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상황에 대한 적응력(adaptability)과 인격적인 융통성(flexibility)을 가진 그는 성경이 단순히 해석화된 고대의 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에 유용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실천적 지침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¹ Thomas Coates, “Calvin’s Doctrine of Justification,”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34/6 (June 1963): 325;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223에서 재인용.

²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223.

³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223.

⁴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I. 17. 7.

⁵ Calvin은 자신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이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해·목자답게 접근”했고, 목자답게 사람들을 매우 “세심하게 대하”였다. Wulfert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황대우·김미정 공역, 『Calvin의 생애와 저서들』 (서울: SFC, 2009), 115.

신학의 유용성과 실천성에 대한 그의 이러한 태도는 현실의 경험을 신학적 체계 속에 초대하기를 강박적으로 거절하는 폐쇄적 신학 흐름에 경종을 울린다.⁶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그릇된 인간의 철학을 비판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현실과 한계를 유연하게 수용함으로써, 그의 신학이 시대를 초월하여 한 영혼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에 유익한 목회 실천적 학문임을 선구적으로 보여 주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 상담에서 연구와 치료의 대상인 인간에 대하여 Calvin은 성경적이면서도 자연과 이성, 혹은 상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통합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Calvin은 인간의 감정이나 육체의 필요를 간과한 채 소위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만 관심을 두는 이원론적 신학에 반대하며 육체를 포함한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인간관을 제시한다. 그런 면에서 Calvin은 상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21세기의 상담자들에게 가르쳐 준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위로 받고, 삶에서 경험되는 감정을 초월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다양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종교적 권위주의에 의해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균형 잡힌 교훈들은 목회자였던 Calvin의 실천적 지혜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의 지혜는 5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실천신학자들과 상담학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있다.

⁶ Don Browning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실천신학은 Hans Gadamer의 실천철학(Practical Philosophy)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을 중요하게 사용한다. 물론 새로운 신학의 방법론에서는 “이해나 해석이나 적용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전통적인 신학의 방법론 즉 이론으로부터 적용을 끌어내는 방법을 비판하고 있다. (Don Browning,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38). 하지만 신학에서 상황과 실천(practice)을 강조함에 있어서는 Calvin의 방법론은 성경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고는 Browning이 지적하는 실천-이론-실천의 현대적 신학의 틀에도 역시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신학이 그 시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많은 부분 실천적인 목적과 신학 이론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성도들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2. 펴는 글

2.1. 스콜라적 사변 철학과 Calvin의 실천적 신학

Calvin은 신학을 핑계로 언쟁을 일삼는 중세 스콜라주의 철학자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저술 곳곳에서 Calvin은 철학자들이 신학과 신앙을 철학적 개념으로 단순화시켜 버리는 환원주의적(reductionism) 습관이나 건조한 “궤변”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믿음을 하나의 지적인 승인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을 교묘한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그 철학자들은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믿음의 신비조차도 자신들의 허황된 논리에 종속시켜버렸던 것이다.⁷

Calvin에게 있어서 이 같은 교황 중심주의적인 신학은 “동풍의 허장성세와 같은데, 이 바람이 스치는 모든 것을 말려 죽여 버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먹고 키울만한 아무런 보탬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⁸ Calvin에게 있어서 스콜라 철학은 인간의 변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건조한 신학이었으며, “천국의 삶에 대한 희망과 영적 유익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⁹

Calvin에게 신학의 중요성은 그 실제적인 유용성에 있었다. 신학이란 공허한 논쟁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신학의 기초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를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에

⁷ Calvin Theological Seminary의 신학자 Richard Muller에 따르면 Calvin이 스콜라 철학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스콜라 전체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특히 Sorbonne 학파의 이성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의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그 계시를 뛰어넘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는 신학적 태도에 대하여 칼빈은 집중적으로 비난한다. Muller에 따르면 Calvin 자신은 오히려 스콜라 철학에 밝은 것이 많으며, 그의 신학적 논쟁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중세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 Richard Muller,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Studies in Historical Theolog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⁸ 율기에 대한 설교 57번, 709.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이양호·박종숙 공역, 『Calvin』 (서울: 나단출판사, 1991), 367에서 재인용.

⁹ Bouwsma, *John Calvin*, 367.

대한 외경과 복종 속에서 삶의 길을 견도록 만든다.”¹⁰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스콜라 철학자들의 언쟁을 일삼는 습관 때문에 신학이 “소수 사람들만을 위한 학문이 되어버렸다. 참된 신학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일이다.”¹¹

신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신학이 신학자나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개방적 태도를 Calvin이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에게 신학이란 사변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며,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모두가 신학으로부터 실제적인 통찰력과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스콜라 철학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논쟁 때문에 정작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운 죄의 용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더 찬양하도록 어떻게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다.¹²

Calvin이 이들의 사변을 싫어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삶의 상황 자체를 스콜라 철학자들이 무시했기 때문이다.¹³ Calvin에게 있어서 삶이란 고난과 갈등이 함께 상존하고 있는 정돈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그들의 신학은 영적 싸움과 시련을 지닌 삶의 영역 밖에 있”었다.¹⁴ 그들은 성도의 삶에 무관심한 채 신학을 맹목적인 지성의 체계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Calvin에게 있어서 기독교 진리는 “허가 아닌 삶에 관한 교리이다.” 그

¹⁰ 율기에 대한 설교 57번, 711. Bouwsma, *John Calvin*, 367에서 재인용.

¹¹ Willem van's Spijker, *Johannes Calvin Zijn Leven en Zijn werk*, 박태현 역, 『Calvin의 삶과 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222-23.

¹² van's Spijker, *Johannes Calvin Zijn Leven*, 222.

¹³ 목회 신학에서 한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그 개인을 둘러싼 삶의 종합적 상황에 주목하도록 관심을 변화할 요청한 것은 필자의 논문지도 교수였던 Vanderbilt 대학교의 Bonnie Miller-McLemore 교수의 “살아있는 인간 거미줄(The Living Human Web)”이라는 메타포였다. Miller-McLemore는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상담과 영혼 케어를 위해서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해석,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핵심 주제로서 “살아있는 인간 거미줄”을 제시하여 목회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다.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in Jeanne Stevenson Moessner, ed. *Through the Eyes of Women: Insights for Pastoral Ca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6-17). Calvin은 목회 상담학이나 실천신학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경험적 상황의 중요성을 목회적으로 통찰한 신학자였다.

¹⁴ van's Spijker, *Johannes Calvin Zijn Leven*, 223.

것은 말과 지식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의 영혼을 이해하고 “마음 속 깊은 감정에서 심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¹⁵ 그에 따르면 믿음이 나 교리의 처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¹⁶

그에게 지식이란 형이상학적 철학 속에 있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경험적이고 유용한 것이어야 했다. 이것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자기들 방식대로만 신학을 하고 지식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철학자들은 “모든 것들은 일정한 체계 안에 위치해 있어, 서로 틀리지 않아야 하며, 어디에나 일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⁷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상의 완결성이었고, 그것만 있으면 진리가 통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토론이든 그런 식으로 결론지으려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지식 방법론에 대해 Calvin은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의 이상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스콜라적 자세로부터 갈등과 시련이 존재하는 인간의 경험적 현실로 신학의 내용을 끌어 내리고자 하였다.

Calvin은 신학의 방법론에 있어서 듣고 배우는 것을 강조한다. 지식에 대한 Calvin의 출발점은 곧 지식의 주체인 인간의 지식은 완전할 수 없으며, 인간 자체가 그러하듯 지식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해력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Calvin 자신도 인간으로서 겸손한 배움의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Calvin의 사상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경향들-인간의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그의 유보, 사변에 대한 그의 혐오, 지식은 전인의 체험이라는 그의 믿음, 듣는 것에 대한 강조와 내면화 경향, 그의 경험주의, 그리고 지식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은 그로 하여금, 일관되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학에 대하여 현저히 인간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었다.¹⁸

¹⁵ Calvin, *Institutes*, III. 6. 4.

¹⁶ Pard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328.

¹⁷ 율기에 대한 설교 50번, 627, Bouwsma, *John Calvin*, 371에서 재인용.

듣고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인간에 관한 한 전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Calvin은 확실히 스킨라적 이상주의자라기보다는 현실주의자에 가까웠다. 그가 말하는 지식은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 안에서의 지식이어야 했다. 그는 지식의 주체인 인간 이해력에 절대성을 부여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였다.¹⁹

그러므로 Calvin의 신학은 인간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인간 중심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⁰ Calvin의 이러한 태도는 스킨라 철학자들이 정작 인간의 한계와 고난을 회피하면서 사변적 인간의 지식이 마치 확실할 수 있는 것처럼 애지중지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Calvin의 신학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며,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구체적 학문이었다. 학문의 실천성과 현실성은 그의 신학의 중요한 성격이자 목적이었으며, 오늘날의 실천 신학이나 목회 신학의 실천적 목적이나 방법론적 성격에 하나의 선구적 모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2. 스토아(Stoa) 철학의 비인간성과 Calvin 신학의 인간성 회복

스킨라적 사변 철학의 비현실적 지식을 거부한 Calvin은 동시에 모든 감각을 초월하는 무정(apaty)한 인간을 이상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스토아 철학의 인간 이해의 비현실성을 거부하였다. 그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공포와 희망의 감정을 초월하기를 열망했다.”²¹ 그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 즉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아픔들을 초월하여 스토아적 침착(stoic calm)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인

¹⁸ Bouwsma, *John Calvin*, 368.

¹⁹ 이에 따라 Calvin의 어휘도 바뀌어 “1539년에 나온 두 번째 판에서, 이제 “거룩한 가르침”은 “우리들의 지혜”(sapientia nostra) 즉 한계를 가진 우리 피조물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지식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다.” Bouwsma, *John Calvin*, 368.

²⁰ 물론 여기서 인간 중심적이라는 말은 인본주의라는 용어와는 달리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그리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신학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리신 그 한계 안에서의 지식을 말한다.

²¹ Bouwsma, *John Calvin*, 406.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 제국에까지 전파되었던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감정을 변덕스럽고 파괴적인 것으로 보았고, 자기 통제와 용기를 개발함으로써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텍스럽고 윤리적인 인간이란 자연(Nature)과 일치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며,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분노, 부러워함, 그리고 질투[의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²² 이 철학은 인간이 감정을 초월할 때 야만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편향된 생각을 피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주적 이성(logos)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Calvin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인간의 감정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초월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 가야 할* 문제였다. 그의 인식이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그런 시련과 고난의 감정을 허락하시는 주체와 의도 때문이다. 시련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감정은 곧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며,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음미하도록 한다. 철학자들과 달리 Calvin은 시련이란 “구원에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친히 고용(employment) 하셨다는 기독교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²³ 그래서 “만일 사정이 나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될 것이며,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심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²⁴

성도에게 고난이란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므로,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은 거기에서 느끼는 감각과 감정을 우선 있는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차갑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채찍을 들어 사람들의 무감각을 징계하신다.”²⁵ 그러므로 Calvin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인내

²² Bertrand. Russell,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London: Routledge, 2004), 264.

²³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32.

²⁴ 용기에 대한 설교 91번, 372, Bouwsma, *John Calvin*, 406-407에서 재인용.

하기를 격려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경험하는 공포나 희망을 경험함으로써 그 감정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극이 되기를 바랐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인간의 삶에 있는 여러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인 (inhuman) 것이다. Calvin은 “한편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삶을 조롱하고 죽음과 부활의 날에 있을 기쁨을 사모하도록 요청하지만 사람의 감각을 박탈하여 음식과 옷, 꽃과 나무, 금과 상아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철학은 비인간적이라 말한다.”²⁶ 천국의 기쁨이 궁극적이고 완전하지만, Calvin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과 만물이 주는 기쁨의 감정을 부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²⁷

슬픔과 눈물에 관한 한 Calvin 자신이 그 깊은 감정들을 친히 겪어왔다. 그는 자신의 편지들에서 불안과 공포심에 대한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동료 개혁자였던 William Farel이 Calvin이 “추구하던 은거와 학문의 평온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함으로써²⁸ Calvin이 어쩔 수 없이 제네바에 머물게 되었을 때, Calvin은 그 급한 성격에 분노했다.

그 외에도 Calvin이 1538년 5월에 Farel과 더불어 제네바에서 추방되었을 때, Calvin은 낙담하였고 또한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는 또한 제네바에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해방된 그 책무로 다시 돌아 갈까봐 무엇보다 두렵다”고 말하였다.²⁹

²⁵ 욕기에 대한 설교 70번, 109. Bouvsuma, *John Calvin*, 407에서 재인용.

²⁶ Parker, *John Calvin*, 132.

²⁷ Calvin이 스토아 철학자들을 “비인간적”이라 말하고 상식이 결여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신학에서 인간성과 상식이 성경과 인간 경험을 해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감정을 인간성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 여기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통나무”나 “비인간적인 괴물”이 되는 것이었다. 감정은 이성과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다. Bouvsuma, *John Calvin*, 308-309.

²⁸ Bouvsuma, *John Calvin*, 47.

²⁹ 하재성, “Calvin의 인간론: 일그러진 의지와 탁월한 이성”,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2권 (2009): 253.

Calvin은 사역과 인생의 위기에서 경험한 다양한 감정들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그런 감정들을 달관한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늘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 경탄해 마지않은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새롭게 경험되는 모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진솔하게 경험하고 표현하였다. 그가 설교자로서 존경 받았던 Strasburg 사역에서는 큰 행복감을 느꼈고, 개혁자 Martin Bucer와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Bucer가 죽었을 때 그의 공포심은 매우 컸으며,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결코 보통의 슬픔이 아닌” 그 큰 상실의 아픔을 억제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노력하였다.³⁰

물론 Calvin 자신도 때로는 당시 철학자들과 태도와 가까운 모습으로 감정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그는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철학자들과 달리 Calvin은 자기감정의 가치조차도 함부로 평가절하 (reduction)하지는 않았다. 영적이거나 초월적인 가치를 맹목적으로 선호하면서 자신의 감정적 경험을 결코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Calvin은 인간이 경험하는 공포와 희망의 감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랐다. 만일 인간이 두려움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번번이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만일 이런 협박이 아무 효력도 없을 때에는 무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나태함을 징계하신다.”³¹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Calvin이 좋아한 것은 아니다. Calvin은 인간에게 평안과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인간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Calvin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통치자로 고백한다. 인간 구원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신적 계획 가운데

³⁰ *Calvini Opera*, XIV, 212-31, 하재성, “Calvin의 인간론,” 253에서 재인용.

³¹ 다니엘 9:13주석.

예정되었음을 말한다.

Calvin은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 신적 유용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생활에서 불필요한 존재론적 불안의 감정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실제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Calvin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들을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회피하거나 초월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경험하도록 요청하지만, 목회 상담에서와 같이 그의 신학을 통하여 지나친 불확실성과 불안에 방치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돕기를 원한다.

2.3.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

삶에 주어지는 감정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삶에서 경험되는 어느 정도의 혼란 내지 혼돈의 상태를 가감 없이 품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던 갖가지 감정들을 소개했던 Calvin은 그 감정들을 통로로 삼아 교회의 유익을 위한 신학을 펼쳤다. Calvin은 두려움을 인정하되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불안과 공포가 있으되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곧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단적인 공포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Calvin은 섭리론(Providence)에서 우주를 각기 그 위치에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힘과 “사탄과…통제할 수 없고 미신적인 두려움…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권위”³²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자들 위에 비치게 되면 그는 안심하게 되고, 이전에 그를 누르고 있던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만 아니라 또한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 섭리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그것은 최악으로 비참한 일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³² Calvin, *Institutes*, I. 16. 3.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³³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의지 아래 복종하게” 함으로써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이처럼 Calvin의 섭리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하게 보이는 우주와 역사, 인간 사회와 개인의 불안이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력 안에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편만한 지속적인 불안을 제거하고, 그로 말미암는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요동과 개인의 불안에 의해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을 섭리론을 통해 해소시키고 확신시키려는 것이 Calvin 섭리론의 목적이다.

Calvin은 Geneva에서 엄격한 규율의 집행자였으나, “그 엄격한 징계는…목회자로서 더욱 온유한 Calvin에 의해 균형을 이루었다. 그의 편지들을 보면 깊은 공감 가운데 고통 당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 [Calvin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³⁵ 그는 약한 자들을 위로하였고 슬퍼하는 자를 자신의 슬픔으로 함께 슬퍼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연약과 질병에 공감하였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수단으로 섭리와 예정론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그는 선택의 교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로로 보았다. 그래서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등을 제거해 버렸”던 것이다.³⁶

그런 의미에서 그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실천성의 목적은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 인간 구원의 예정조차도 단순히 이상적인 신학 체계 그 자체를 위한

³³ Calvin, *Institutes*, I. 17. 11.

³⁴ Calvin, *Institutes*, I. 16. 3.

³⁵ Rodney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166.

³⁶ DPCC, 1051.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현실적인 불안을 제거하고, 위로와 확신을 위한 목회적 영혼 돌봄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Calvin이 목회적 위로자가 되는 이유는 그의 목회자로서의 은유한 성품 때문만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그의 태도는, 피조물로서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경험할 때 그 모든 감정적 변화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은 그의 확신 때문이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고난에는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것이지 무관심이나 유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스토아 주의자들의 섣뎡어리 같이 [감각 없는] 철학으로 귀결되어서도 안 된다. 아픔, 가난, 질병, 수치와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 비통함, 신음과 눈물 등의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은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으리라”[(Calvin, *Institutes*, III. 8. 11)]는 것을 아는 신령한 기쁨에 의해서 물러갈 것이다.³⁷

Calvin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긍정할 뿐 억압하거나 부인하려던 철학자들처럼 단순화시키고 빙정대지 않았다. 인간의 감정에 대하여 그가 요청하는 태도는 자연스러움과 진지한 인정이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Calvin은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이라도 믿음 안에서 반드시 위로와 기쁨으로 종결될 것을 확신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섭리론과 예정론을 말하는 Geneva의 개혁자 Calvin은 피학적으로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인 기쁨의 회복을 확신하는 긍정적 낙관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Calvin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도 “섭리만큼이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고 할 만큼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³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불안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³⁷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219.

³⁸ Bouwsma, *John Calvin*, 399.

이러한 이유로 이 (섭리론의) 교리를 뒤집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참된 위로를 박탈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들어 놓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상에서 자신들을 위한 지옥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안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³⁹

현재 나타나는 고난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Calvin에게 신학이란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를 안내해 줌으로써 “참된 위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⁴⁰ 그런데 당시의 신학자들의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과 시련을 지닌 삶의 영역 밖에 있”었고, “무익한 문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인 교회 건설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다.”⁴¹ Calvin에게 있어서 참된 신학이란 현실에서 고난과 모순을 경험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목회자로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4. Calvin의 인간상: 적극적인 생활과 인생의 즐거움

Calvin이 가진 기독교 이해의 깊이는 신학적 논리 이상으로 결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Calvin의 신학에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많은 삶의 규범들이 있어서는 자연과 이성이라는 상식적인 기준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본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의 신학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절대 타락의 교

³⁹ *Calvin's Commentaries*, Psalm 107:42.

⁴⁰ *Calvini Opera* 33:709, van's Spijker, *Johannes Calvijn*, 222에서 재인용.

⁴¹ van's Spijker, *Johannes Calvijn*, 222.

리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에게 부여된 본성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인적 인간의 가치에 대한 Calvin의 깊은 성찰은 20세기에 이르러 인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도 동의할 만한 건강한 인간의 일상적 모습을 그의 목회적 관심 가운데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 건강한 인간에 대한 그의 목회적 이상은 많은 부분 오늘날 상담자들이 추구하는 내담자들의 자유와 평안, 그리고 즐거움을 회복하도록 도우려는 목회 신학적 노력과 상통한다. Calvin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된 말씀과 더불어 일생 생활에서 자연과 이성애 조화를 이루어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목회자로서 지도하고 있다.

2.4.1. 음식의 맛과 즐거움

Calvin의 신학은 성도들이 지상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격려하고, 인생에 주어지는 즐거움을 피하지 말고 누리도록 가르친다. 균형 잡힌 그의 신학은 지나친 탐욕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중세 가톨릭이 남겨 놓은 금욕주의적 흔적들을 경계한다. 그들이 가진 인간관은 금욕주의를 향해 치우쳐 있으며, 그들의 신학은 육체의 공로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기 의로 가득하였다. Calvin에 의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도 아니며 건강한 생활도 아니다.

금식을 통해 육체적 필요를 희생함으로써 자기 의와 영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스펀라적 노력들을 Calvin은 반대하였다. 그에게 음식이란 결코 삼가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며, 따라서 “어떤 음식을 즐기는 것도 비난받을 것이 없이 합법적이다.”⁴²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을 비난하거나 어떤 종류의 음식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음식은 영양과 끼니의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에 기여한다. 어떤 종류의 음식도 비난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줄 것이다.⁴³ 음식이 배고픔을 달래는 소극적인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Calvin은 지적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전혀 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쓸데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의 영양을 위하여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신다.⁴⁴

인간이 육신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자연 가운데 인간의 생존과 생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다. 만일 경건하게 산다는 명분으로 육체의 필요를 소홀히 하고, 음식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방치하는 것임과 동시에, 비인간적이고 이상한 경건이 될 수밖에 없다.⁴⁵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영양뿐만 아니라 맛의 즐거움이다. 모든 음식들은 필요한 영양과 맛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좋은 음식들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⁴⁶ 음식은 인간이 경험하는 맛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생활에 즐거움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선물이다.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곧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다.

음식을 통한 즐거움은 포도주에 대한 Calvin의 태도에서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Calvin에 따르면 포도주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며,

⁴² Calvin, *Comm.*, 1 Timothy 4:3.

⁴³ Calvin, *Comm.*, 1 Timothy 4:3.

⁴⁴ 사무엘하에 대한 설교 39번, 347, Bouwsma, John Calvin, 312에서 재인용.

⁴⁵ Bouwsma, *John Calvin*, 310.

⁴⁶ Calvin, *Institutes*, III. 10. 2.

“필요해서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허락되었다.” 예수께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⁴⁷ 잔치나 향연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잔치”를 여는 것을 긍정하는 Calvin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에 매우 담대한 개혁자이며 신학자였다.⁴⁸

물론 Calvin의 이러한 언급을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포도주를 권장하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탐닉을 경계하여 Calvin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감각에 집착하며, 몸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적절히 마셔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Calvin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음식과 그 즐거움을 인정하면서, “즐거움의 마음을 일으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한층 감사를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⁴⁹

물론 Calvin 자신에게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다. 그러나 위장병으로 인해 그것을 먹지 못하였고, 하루에 한 끼, 어떤 때는 건너뛰면서, 주어진 음식에 만족(content)하였다.⁵⁰ 그에게는 음식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음료의 선물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았고, 그 맛과 흥이 주는 즐거움을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Calvin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미워하도록 가르치지만, 또 다른 한편 인간의 즐거움의 감각을 앗아가는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비인간적”(inhuman)이라며 분노하였다. 그가 자기 절제(self-control)와 균형을 강조하는데,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려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Calvin에게 음식과 그 즐거움에 대한 규칙이 있었다면 그것은 “중독의 종 노릇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유(the freedom of enjoyment without the servitude of self-indulgence)”라고

⁴⁷ Calvin, *Comm.*, John 2:8.

⁴⁸ Calvin, *Comm.*, Genesis 21:8.

⁴⁹ Calvin, *Comm.*, Psalms 104:15.

⁵⁰ Parker, *John Calvin*, 132.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2.4.2. 가족과 성(性)

음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경험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규정하는 Calvin은 더 나아가 인간의 성(性)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특별히 독신을 거룩하게 여기며 성을 죄악시하는 중세의 독신주의를 그는 매우 심각하게 정죄한다. 독신 서약을 반대하면서 Calvin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성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 그리고 그 분이 주신 선물을 마치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 하였다.⁵²

Calvin에게 있어서 성은 자연의 덕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자연의 본성을 배척하는 것은 죄다. 결국 이런 죄가 가톨릭 교회에서 성직자들로 하여금 “야만적인 동물과 같은 혐오스러운 것들”을 하게 한 것이다.⁵³ 비록 Calvin이 통제되지 않는 성적 본능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심하게 비난했지만, “그는 항상 성적 생식 행위가 신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여겼다.”⁵⁴

그러므로 인간의 성적 행위 자체를 정죄하거나 사악한 것으로 오도하는 것을 Calvin은 반대한다. 통제되지 않는 성에 대한 신앙적 두려움은 자칫 육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오기 쉽다. 특히 성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시대에 성에 대한 Calvin의 의식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부도덕한 행위 외의 성적 행위를 신적 제도로 여긴 것은 성에 대한 Calvin의 신앙적 적극성과 신학적 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성의 기능을 오직 자손의 잉태를 위한 기능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Thomas Aquinas는 자연법(Natural Law)에서 인간의 성에

⁵¹ Parker, *John Calvin*, 132.

⁵² Calvin, *Institutes*, IV. 13. 3.

⁵³ Calvin, *Comm.*, 1 Corinthians 7:8.

⁵⁴ Bouwsma, *John Calvin*, 313.

대해 논하면서, 자손 번식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모든 성 행위를 금하고 있다.⁵⁵ 그러나 Calvin은 성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암시적이지만 “성적 쾌락에 대한 감사”의 표현까지 주저하지 않는다.⁵⁶ 그러므로 Calvin에게 있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 행위는 순결하고 선하며 거룩한 것이”다.⁵⁷

Calvin은 결혼관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관대하였다.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수치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야곱이 어떤 이유로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결점이 될 수 없고 “여성이 가진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그 여성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⁵⁸

Calvin은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애정과 관심, 그것이 외모 때문이든지 아니면 몸매 때문이든지 그 사랑의 비밀과 신비성을 존중한다. 남녀의 “비밀스러운 사랑이...자연스럽게 서로간의 사랑을 만들어 내는” 것을 Calvin은 이해하였다.⁵⁹ 인간의 애정을 자연적이면서 신비로운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관심에서 시작하여 상호적인 존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Calvin은 이해하고 있다. 병약했던 Calvin 자신은 결혼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치우치기도 하는 타인들의 애정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한다.

그런 반면, 어린 소녀들에게 수녀단에 가입시켜 “인생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에 있는 어린 여성들에게 평생 독신으로 살도록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분개하였다.⁶⁰ Calvin은 어린 소녀의 시기가 “사랑스러

우면서도 위험한 시기”라고 규정하면서,⁶¹ 이들에게 온유한 부모의 보살핌이 얼마나 필요한지 역설한다. Calvin은 수녀단에 들어감에 있어서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른 나이에 소녀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나, 자신의 의사에 대한 존중이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집가는 것을 금지한다. 어린 소녀와 중년 남성의 결혼과 같이 자연과 이성에 어긋나는 무리한 결정들에 대해서도 Calvin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비난한다.

가정의 제도에 관한 한 그는 대가족보다 소가족을 선호했는데, 그것은 가정의 평안의 관점에서 그랬던 것이다. 결혼 자체에 대한 것도 영적 실용성의 관점에서 “존귀함을 유지하게 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 하였으며,⁶² 일부다처제보다 일부일처제가 나은 이유는 여러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조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⁶³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지만 자연의 일부인 인간에게 있는 생리적인 필요와 욕구를 신적인 성격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 내의 다양한 금욕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건주의적 신앙에 치우친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자연스러운 일상 생활에서조차 불필요한 죄의식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자신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성, 곧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인격적 교제를 위해 허락하신 선물들을 강제적으로 억누르다가 더욱 큰 빛에 빠지게 되는 것을 Calvin의 시대에 앞선 선구적인 통찰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신학에서 이와 같은 실천적 지혜와 판단의 근거에는 자연과 이성이라는 상식적 판단의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55 그러면서도 Aquinas는 장녀 제도에 대해 필요악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5세기와 16세기에 사제들 가운데 그의 정책에 동의하여 매음굴을 운영하거나 직접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Melissa H. Dittmore, *Encyclopedia of Prostitution and Sex Work* (Santa Barbara, CA: Greenwood Press, 2006), 40.

56 Bouwsma, *John Calvin*, 313.

57 *Calvin, Comm.*, 1 Corinthians 7:6.

58 *Calvin, Comm.*, Genesis 29:18.

59 *Calvin, Comm.*, Genesis 29:18.

60 *Calvin, Institutes*, IV. 13. 19.

61 *Calvin, Comm.*, 1 Corinthians 7:36.

62 *Calvin, Comm.*, 1 Corinthians 7:14.

63 *Calvin, Comm.*, 1 Corinthians 11:37.

2.4.3. 인생의 즐거움과 위로

Calvin에게 있어서 예술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그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그는 아름다운 예술과 지식의 저자를 언제나 하나님이라 주장한다. 조각이나 회화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으며,⁶⁴ 그 가운데서 음악에 대한 그의 칭찬은 매우 고조되어 있다.

사람에게 휴식을 주기에 적합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서, 음악은 첫째가는 것이거나 가장 주요한 것들 중의 하나에 속한다. 우리는 음악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귀중히 여겨야 한다.⁶⁵

그리스도인들에게 휴식이란 그 존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안식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쉬셨고, 그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이라는 참된 목표로 부르신다.”⁶⁶ 그 날에 쉬신 이유는 우리가 본받을 모델이 되신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작품들의 아름다움과 탁월성...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⁶⁷

즐거움에 관한 한 Augustine은 “사용은 하나 즐기지는 않도록 한다”(utor non frui)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Calvin은 그것이 곧 스토아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 분명히 배격하였고, 인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즐거움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려는 것은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척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즐거움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⁶⁴ Calvin, *Institutes*, I. 11. 12.

⁶⁵ 1542년 Geneva Service Book에게 보낸 편지, *Calvini Opera*, VI, 170 창 4:20 주석 참조.

⁶⁶ 출애굽기 20:8 주석, CO 24:578C; CTS 4:436, Randall C. Zachman,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s, 2006), 239에서 재인용.

⁶⁷ Zachman, *John Calvin*, 239.

그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즐기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또한 비현실적인 것이기도 했다. 어떠한 사람도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과 마주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즐거움들에 저항할 수 없다는 무능력 때문에 양심이 괴로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⁶⁸

즐거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Calvin은 매우 현실적이다. 그는 자연과 이성이라는 판단 기준 이외에 인간 경험의 현실성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풍성한 선물들은 인간이 “즐거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두신 것들이다. 극장의 구경거리나 진열된 선물들은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런 기쁨과 “모든 감정들을 버리고, 돌맹이로 퇴락하지 않고서야 경험할 수 없는” 무감각을 가리켜 Calvin은 “비인간적 철학”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악의적 왜곡이라고 비난하였다.⁶⁹

즐거움을 누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왜곡된 철학의 주장이다. Calvin은 인간에게 주어진 감상과 감사의 능력, 그리고 경탄과 놀라움의 능력이 창조주의 위대한 선물에 응답하는 피조물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 가운데 좋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에 응답하여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도하신 즐거움들에 저항”하거나 “양심이 괴로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Calvin은 확신했다. 그런 즐거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다고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풀잎 하나도 새끼 하나도 인간들을 즐겁게 해 줄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오히려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선물들에 대한 경멸”이며 “불경이요, 신성모독”이 될 것이다.⁷⁰

⁶⁸ Bouwsma, *John Calvin*, 310.

⁶⁹ Calvin, *Comm.*, Psalms 104:31.

Calvin에게 있어서 모든 종류의 즐거움은, 마치 고난과 슬픔의 감정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이 감정 역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이며 수단이었다. 어거스틴과 달리 피조물로서의 즐거운 삶을 강조하는 Calvin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건강하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일상의 모습이 “달콤하고, 즐겁고, 결핍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삶”을 누리기는 것이라면,⁷¹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야 하는 즐거움의 범주는 모든 지각의 영역과 아름다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언제나 그러하듯 Calvin은 변영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절제한 자기민족과 도취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성공과 행복에 도취되지 않도록 가난이나 기근, 고통스런 질병이나 쫓겨나 추방당하는 것과 같은 역경을 통해 단련하시기도 한다. Calvin에게 있어서 건강한 사람이란 즐거움의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전인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특히 즐거움의 감정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그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언제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나그네의 자세로 사는 때에 한”한다.⁷²

2.5. 목회자 Calvin의 실천적 지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Calvin은 성경을 주석하고 신학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목회를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신학은

70 고린도전서에 대한 설교 10번 698, 켈 5:5-6 주석, Bouwsma, *John Calvin*, 310에서 재인용.

71 *Calvin, Comm., Genesis*, 1:30.

72 *Calvin, Comm., John* 12:25.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실천성은 곧 목회적 유용성으로 연결된다.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⁷³

여기서 그가 언급하는 유용성이란 특별히 목회적 관점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복종하면서 사는 것인지,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유익한 지침들을 가리킨다.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지식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지식의 유용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Calvin은 신학의 일차적 목표를 “어떻게 하나님의 힘이 인간의 허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에 두었다.⁷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유로운 양심 가운데 불필요한 부담이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Calvin은 모든 목회적 지식과 지혜를 동원한다. 그는 상담학이나 심리학이 나타나기 전 400년 이상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으나, 오늘날 그 유용성이 뚜렷한 인간 발달과 치료에 대한 실천적 지식들을 이미 꿰뚫어 보거나 한 것처럼 시대에 앞선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였다.

예를 들어, 공감(empathy)이라는 말은 20세기 심리분석학에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상담자의 가장 기본적 자질이라 할 수 있는 공감적 체험에 있어서 Calvin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 공감의 자질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적극적인 위로의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을 마음과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건강한 목회자였다.

창세기에서 아내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사람에 대하여 슬퍼하기 위해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것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가?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애끓는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만일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슬픔이 없는 것은 “야만적이고 무감각한 일이기 때문이다.”⁷⁵

73 *Calvin, Institutes*, III. 21. 3.

74 Bouwsma, *John Calvin*, 380.

Calvin은 이미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잃고 상실의 고통을 당하는 다른 한 사람을 진실한 공감 가운데 위로할 수 있었다. 그는 아내를 잃었던 자신의 슬픔을 기억하였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던가를 인상 깊게” 이야기한다.⁷⁶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에도 자신이 가진 공감의 능력으로 그 인물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사람의 인간적인 슬픔이 얼마나 진지하고 깊은지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열과 공포, 두려움과 슬픔 등의 감정에 이끌리셨다”는 것을 알았다.⁷⁷ 그러나 그의 균형 감각은 동시에 슬픔에 대한 중독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가 지나치지 않는 사적인 슬픔을 겪었을 때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지만, 만일 불필요한 슬픔과 애통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잘못이 된다는 것이다.⁷⁸

아울러 오늘날 목회 상담에서 말하듯 Calvin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것이지 극복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⁷⁹ 슬픔은 슬픔으로 인정해야 하고, 억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슬픔을 경험하는 인간의 지각은 경우에 따라 자연히 왜곡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슬픔 가운데 방치하시고, 그 슬픔으로 인해 우리의 기운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⁷⁵ Calvin, *Comm.*, Genesis 23:2. 이 주석은 Calvin의 아내가 죽은 후 5년만에 출간되었다.

⁷⁶ 하재성, “Calvin의 인간론”, 254.

⁷⁷ Francois Wendel, *Calvin*, 김재성 역, 『Calvin: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258.

⁷⁸ 그렇다고 해서 Calvin이 성경 인물들의 감정을 오늘 상담학에서와 같이 모두 인정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욕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은 Calvin에게 있어서 용서 받지 못할 만큼 과도한 것이었다. Calvin은 이 부분에서 욕이 절제 없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한 것이라 생각했고, Bouwsma는 이것이 그의 둔감한 도덕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Bouwsma, *John Calvin*, 222.

⁷⁹ Henri Nouwen은 그의 저서 *The Wounded Healer*에서 “목회자가 고통을 제거하는 의사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공유된 고통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활력을 주”기 때문이다. Henri Nouwen, *The Wounded Healer* (New York: Image Books, 1979), 92.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⁸⁰ Calvin은 믿음의 점진적인 성장을 인정한다. “그 누구도 용이하게 전진하지 못하며 비틀거리고 절뚝거리며 더 심하게는 기어서 앞으로 나아간다. 연약한 발걸음으로 힘이 들어 신음하며 나아가는 것이다.”⁸¹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슬픔의 형편에 따라 불안과 은총, 갈등과 의심, 믿음과 혼란 사이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담하게 괴로워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Calvin은 역설한다.⁸²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강박적인 이상, 혹은 스토아적인 초월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혼란과 고난이 함께 하는 현실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한다.⁸³ 그렇지만 비록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승리가 될 것을 Calvin은 분명히 확신한다.

Calvin은 인간의 믿음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믿음의 과정이 갑작스런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것임을 잘 안다.⁸⁴ 그리스도인의

⁸⁰ Calvin, *Institutes*, III, 2, 4.

⁸¹ Calvin, *Institutes*, III, 6, 5.

⁸² Calvin, *Comm.*, Isaiah 12:2.

⁸³ 목회 신학자 Seward Hiltner는 “목회 신학이 학문적 신학에서 비롯된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키는 것 이상”이며, “신학적 사고와 현대적 경험이 둘 모두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James Woodward and Stephen Pattison, ed., *The Blackwell Reader in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 2000], 25). 목회 신학자 Miller-McLemore는 Browning과 같은 맥락에서 “신학이 복잡한 [삶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한 모든 신학은 실천적”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Paul Slentz의 말을 빌려, “신학은 정리되지 않은 매일의 일상의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며, 혼란한 일상의 구체적인 경험을 기독교 전통의 위대한 교리들과 대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Miller-McLemore, “Practical Theology as the End of Meta-theorizing about Practice.”). 같은 맥락에서 James Fowler는 역사 속의 기독교 신학은 “교회의 건설과 개혁의 산물이었으며… 실천신학은 교회의 규범적 기억과…세상에서 그리스도 제자도를 실행하기 위한 갈등 사이”에서의 변종이라 말한다(James Fowler, “Practical Theology and Theological Education: Some Models and Questions,” *Theology Today*, 42/1 [April, 1985]). 이상의 현대 실천 신학적 정의는 Calvin이 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의 역경과 구체적인 고난을 신학적 작업에 함께 포함시키는 실천신학적 방법론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간의 내면적, 환경적 경험에 대한 실천 신학적 작업을 자신의 신학 속에서 펼쳐냈다.

삶에서도 실수와 의심이 동반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약한 믿음도 반드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작은 저항의 노력 자체가 거대한 승리의 표징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속이거나 방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⁸⁵ 그리스도인도 변덕스러운 삶의 굴곡을 경험할 수 있으나 믿은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을 위로한다.

놀라운 것은 죄에 대한 인간의 무능과 절망을 말하는 Calvin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과, 인간에게는 고난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경험적 유연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그의 말씀을 철화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경험적으로 있을 수 있다.⁸⁶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혼란을 느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부분인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유연성 없는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와 판단만을 내리려는 잘못된 상담자나 지도자들의 인격과 습관에 대해 Calvin은 탁월한 지혜로 경고한다.

자신들이 바르게 행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치 규칙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행위 양식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Calvin은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을 요구하며,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무엇이 적합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급하게 명령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옳고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 우리가 따르는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규정해버리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전체적인

⁸⁴ 심리학자 Erik Erikson은 오늘날 발달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덟 가지 성장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각 성장의 단계는 긴장과 갈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거기서 그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각 단계의 약점을 장점으로 극복해야 하지만 약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으며, 다음 단계에서 그 이전의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인간의 성장이 전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DPCC, "Life Cycle Theory and Pastoral Care,"* 648.

⁸⁵ *Calvin, Comm., Psalm, 88:15.*

⁸⁶ *Calvin, Comm., Psalms, 77:8.*

일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⁸⁷

특히 오늘날 충분한 정보보다 지시적 상담이나 직관적인 충고에만 의존하는 상담자나 목회자는, 일방적인 가르침보다 영혼의 위로를 우선 생각한 목회자 Calvin의 신중함과 존중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각자 다른 소명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겸손히 배우고 이해하려는 학습자의 마음(teachable mind)을 갖지 않고, 마치 자신이 모든 상황과 사례를 직관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성급하게 명령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상담자나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며, 이는 목회자 Calvin이 중대하게 경계하는 일이었다.⁸⁸

3. 닫는 글

Calvin은 교리적 질서와 성경 해석에 탁월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필요와 경험에 대해 자연과 이성, 그리고 현실의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목회자였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졌고, 보이는 육체의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즐겁게 살도록 권면한다. 그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필요를 돌보듯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았고, 속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권면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필요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Calvin은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그는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Calvin은 스콜라 철학의 사변 대신 신학의 실천적 유용성을 선택하였다. 예정이나 섭리의 교리를 통해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⁸⁷ 창 14:23 주석, Bouwmsa, *John Calvin*, 450에서 재인용.

⁸⁸ 상담 중에 내담자의 죄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찾아 이름을 붙이는 Jay Adams식의 권면적 방식이 Calvin이 말한 양심의 자유에 배치된다는 것은 하재성, “Calvin의 인간론”, 257-58을 참고하라.

주고,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주기 원했다. 그의 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와 확신을 의도한다는 면에서 실천적이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이 지향하는 초월적인 무정의 인간을 비현실적인 무감각의 인간이 되는 것이라며 경계하였다. 상담학에서 기대하듯 Calvin도 인간의 감정을 극복하는 대신 경험하고 느끼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자극제가 되기를 바랐다.

Calvin의 실천적 신학은 오늘 현대 목회 신학과 상담학에서 어떤 모습들을 건강한 인간상으로 상징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Freud가 스토아적인 침잠과 무정한 모습을 자기 치료의 이상으로 여겼다면, 우리는 Calvin이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즐거운 인간상을 우리의 중요한 뜻대로 삼아야 한다. 비록 불안과 두려움이 경험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삶의 경험들이 통치자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겪어야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초월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Calvin에게 있어서 건강한 인간이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자신과 타인의 본성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경탄하며 자신이 누리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 능력을 가진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Calvin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거둬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 조예가 깊어서 천문학이나 수사학, 수학과 예술과 같은 학문적 세계를 통해서도 참으로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⁸⁹

물론 이 모든 즐거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은 우리를 지상에서 하늘로 인도하는 “사다리”와 같은 즐거움이 될 것이다.⁹⁰ 만일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만 몰입하게 한다면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욕심으로 변질될 것이다.

현대 기독교 상담자들은 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의 경험과 삶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학습자로서의 태도를 요청하는 Calvin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의 신학은 실천적이고 적극적이며,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정체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들은 균형 잡힌 Calvin의 신학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학의 실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확신과 현실에서의 삶에 대하여 치우치지 않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⁸⁹ Calvin, *Comm.*, Genesis, 1:16.

⁹⁰ Calvin, *Comm.*, Psalms, 4:7.

참고문헌

- 하재성. “Calvin의 인간론: 일그러진 의지와 탁월한 이성.”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2권 (2009).
- Bouwsma, William J.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이양호·박종숙 공역. 『Calvin』. 서울: 나단출판사, 1991.
- Browning, Don.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T. McNeill. Trans. Ford L. Battl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 _____. *Calvin's Commentaries*. Genesis, Psalms, Isaiah, Daniel, John, 1 Corinthians, 1 Timothy.
- Coates, Thomas. “Calvin's Doctrine of Justification.” *Concordia Theological Monthly* 34/6 (June, 1963).
- de Greef, Wulfert.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황대우·김미정 공역. 『Calvin의 생애와 저서들』. 서울: SFC, 2009.
- Ditmore, Melissa H. *Encyclopedia of Prostitution and Sex Work*. Santa Barbara, CA: Greenwood Press, 2006.
- Fowler, James. “Practical Theology and Theological Education: Some Models and Questions.” *Theology Today* 42/1 (April, 1985).
- Hunter, Rodney.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In Jeanne Stevenson Moessner, ed. *Through the Eyes of Women: Insights for Pastoral Ca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Muller, Richard. *The Unaccommodated Calvin: Studies in the Foundation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Studies in Historical Theolog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Nouwen, Henri. *The Wounded Healer*. New York: Image Books, 1979.
- Parker, T. H. L. *John Calvin: A Biograph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Partee, Charles.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Russell, Bertrand.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London: Routledge, 2004.
- van's Spijker, Williem. *Johannes Calvijn Zijn Leven en Zijn Werk*. 박태현 역, 『Calvin의 생애와 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Wendel, Francois. *Calvin*. 김재성 역. 『Calvin: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Woodward, James and Stephen Pattison. (Ed.) *The Blackwell Reader in Pastoral and Practical Theology*.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 2000.
- Zachman, Randall C.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s, 2006.

Abstract

John Calvin's Pastoral Theology: A Practical Vision of Healthy Human Life

Ha, Jae-Sung

John Calvin, a reformer and theologian, has been often misunderstood as a cold and vigorous thinker without humanity. However, we have to differentiate his logical completeness with his theology from his pastoral attitude toward God's people. In fact, Calvin was an empathic minister with well-balanced attitude toward theology and pastoral practice. Although he has been widely known for his logical perfection, Calvin ha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human existence. He disliked the Scholastic vision of theology due to its unrealistic argumentation at its end. He also demonstrated a strong contempt against Stoic apathy in human understanding. Calvin practically and pastorally intended to give God's people a strong comfort through his theology, especially through Providence and Predestination. He wanted to have them benefit from his works. Human emotions,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are positive stimulations that lead us to the providence of God in control over the universe. God's people must experience all kinds of emotions in life rather than ignore them along with God's will. Practical and pastoral theologians today can appropriate Calvin's pastoral insights for the believers' pleasant and healthy life.

Key-Words : John Calvin, Scholasticism, Stoicism, practice, joy

21세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윤리적 과제: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를 중심으로*

남태욱 박사 (Nam, Tae-Wook)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기독교윤리)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중적 위기에 처해 있다. 안으로는 정체성의 위기와 밖으로는 관계성의 위기이다. 이와 같은 위기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첫째, 한국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제기된 두 위기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1세기 한국교회의 개혁, 혹은 혁신을 위한 윤리적 과제는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한국교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즉 신앙과 실천의 분리, 횡금만능주의, 정교유착 등이다. 다음, 필자는 한국교회의 윤리적 문제를 위한 답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타계적 신앙과 이원론적 세계관의 극복, 전체적·통전적 신앙(영성)의 회복, 공동체 윤리와 신앙의 공공성의 회복, 사회적 책임의 구현: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국교회를 위한 제언을 끝으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 논문 접수일: 2009. 9. 28. 수정 접수일: 2009. 12. 14. 게재 확정일: 2010. 2. 20.